

보도희망일: 즉시 보도 자료배포일: 2018. 7. 10(화) 쪽 수: 총 5 매	배포 및 공연 문의	공연기획팀 손유리 팀장 TEL 02-6099-7405 MOBILE 010-6292-3956 FAX 02-6099-7416
---	---------------------	---



세계적인 거장 파비오 루이지, 한국 교향악단 첫만남

「KBS교향악단 브루크너 심포니 특별연주회」

세계적인 명성의 거장 파비오 루이지가 한국 교향악단과 최초로 호흡을 맞춘다. 재단법인 KBS교향악단(사장 : 박희성)은 2018년 10월 13일(토) 오후 8시 롯데콘서트홀, 10월 14일(일) 오후 5시 통영국제음악당에서 <파비오 루이지 초청 KBS교향악단 특별 연주회>를 개최한다. 파비오 루이지는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지닌 지휘자로 알려져 있으며, 특유의 세련된 지휘와 깔끔한 음악적 해석으로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아시아에서도 각광받고 있다. 이번 특별연주회에서는 드레스덴 슈타츠헤펠레와도 녹음했던 브루크너 <교향곡 9번>으로 한국 관객들에게 ‘루이지 임팩트’를 선사할 것이다.

파비오 루이지는 이탈리아 출신의 세계 정상급 지휘자로 지난 달, 뉴욕 필하모닉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로 자리를 옮기는 압 판 즈베던의 자리를 이어받아 2019/20년 시즌부터 댈러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음악감독직을 맡는다는 소식으로 음악계의 큰 관심을 모았다.

그는 덴마크 국립 교향악단의 상임지휘자(2017년~현재)이자, 이탈리아의 음악·무용 축제인 마지오 무지칼레 피오렌티노 음악감독(2018년~현재), 최근 사임 의사를 밝힌 취리히 오페라 음악감독(2012년~2018년)까지 세계 각국에서 최고 수준의 음악적 리더십을 펼쳐 온 명장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드레스덴 슈타츠키펠레와 쟈퍼 오페라의 수석지휘자(2004년~2010년), 빈 심포니의 상임지휘자(2005년~2013년)를 역임하고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수석지휘자(2011년~2017년) 등을 거치며 오페라와 오케스트라 무대에서 세련되고 정교한 해석으로 입지를 구축해 온 거장이다.

말러와 브루크너의 교향곡으로 다수의 음반을 녹음하며 자신의 주요 레퍼토리로 선보인 바 있으며, 대곡의 스케일 속에서도 견고한 음악적 구조와 섬세한 표현을 놓치지 않는 음악적 리더십을 발휘하며 오케스트라와의 여유로운 호흡을 보여준다는 평단의 찬사를 받았다.

지난 2009년 드레스덴 슈타츠키펠레 내한공연으로 한국을 찾은 이후 9년만의 내한으로, 한국 교향악단과는 처음 갖는 무대이기에 이번 공연이 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KBS교향악단과의 연주를 위해 그의 주요 작품 중 하나인 브루크너 <교향곡 제9번>을 택해 KBS교향악단과의 음악적 교감으로 묵상적이고도 경건한 브루크너의 음악세계를 유감없이 보여줄 예정이다. 이번 무대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피아니스트이자 '건반 위의 젊은 거장' 임동혁이 가세해 모차르트가 남긴 최초의 단조 피아노 협주곡인 <피아노 협주곡 제20번 d단조, 작품 466>으로 비극적인 아름다움을 노래한다.

이번 <파비오 루이지 초청 KBS교향악단 특별연주회>의 입장료는 3만~15만원이며 7월 16일(월)부터 티켓 판매를 개시한다. 개시 당일부턴 이틀간 전 예매자를 대상으로 조기에매(얼리버드)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공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단법인 KBS교향악단(☎ 02-6099-7400)으로 문의하면 된다.

- ※ 첨부 : ① 파비오 루이지 초청 KBS교향악단 특별연주회 공연 개요
- 프로그램 등 공연 정보
- 예매 안내
② 파비오 루이지 초청 KBS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출연자 프로필

① 공연개요

○ 일시 및 장소 Date and Venue

- 2018년 10월 13일(토) 20:00 롯데콘서트홀
- 2018년 10월 14일(일) 17:00 통영국제음악당

○ 출연자 Artists

- 지휘 : 파비오 루이지(Fabio Luisi)
- 피아노 : 임동혁(Dong-Hyek Lim)

○ 프로그램 Program

- 모차르트 / 피아노 협주곡 제20번 d단조, 작품 466
W. A. Mozart / Piano Concerto No. 20 in d minor, K. 466
- 브루크너 / 교향곡 제9번 d단조
A. Bruckner / Symphony No.9 in d minor, WAB 109

○ 티켓 가격 및 예매 정보 Ticket Information

- R석 150,000원 / S석 120,000원 / A석 90,000원 / B석 60,000원 / C석 30,000원
- * 롯데콘서트홀 (☎ 1544-7744) <http://www.lotteconcerthall.com/>
- * 인터파크(☎ 1544-1555) <http://interpark.com>
- 공연문의 (재)KBS교향악단 (☎ 02-6099-7400) www.kbssymphony.org

② 출연자 프로필

지휘 / 파비오 루이지 Fabio Luisi



©Barbara Luisi Photography

파비오 루이지는 현재 취리히 오페라와 덴마크 방송 교향악단(덴마크 국립 교향악단)의 상임지휘자 및 이탈리아 피렌체의 음악·무용 축제인 마지오 무지칼레 피오렌티노의 음악감독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9/20년 시즌부터 댈러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음악감독으로 취임한다. 그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수석 지휘자를 역임하였고,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빈 심포니 오케스트라 수석 지휘자를 맡았으며, 그 외에도

드레스덴 슈타츠크펠레 및 쟈퍼 오퍼(2007-2013) 음악감독, 라이프치히 MDR 심포니 오케스트라(1999-2007) 수석지휘자, 스위스 로망드 오케스트라(1997-2002) 음악감독 등을 역임하였다.

파비오 루이지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를 비롯하여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NHK 심포니 오케스트라, 암스테르담 로열 콘세르트허바우,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와 오페라극장의 객원 지휘자로 무대에 올랐고,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서는 슈트라우스의 오페라 <다나에의 사랑>, <이집트의 헬레나>를 연주하였다. 또한 베토벤 <피델리오>, 베르디 <리골레토>, <레퀴엠> 등을 취리히 오페라와 함께 연주하였다.

다수의 교향곡과 오페라 음반을 녹음한 파비오 루이지는 베르디 오페라 <아롤도>, <예루살렘>, <알지라>, 벨리니의 <청교도>, <카폴레티 가문과 몬테키 가문>을 비롯하여 슈만과 오네게르 교향곡 전곡을 녹음하였다. 또한 드레스덴 슈타츠키펠레와 함께 브루크너 <교향곡 9번>을 녹음하였고 이 음반으로 2009년 에코(ECHO) 클래식 상을 받았다. 메트 오페라와 함께 녹음한 바그너의 <지크프리트>와 <신들의 황혼>으로 그래미상을 받았다. 또한 취리히 오페라의 취리히 필하모니아와 함께 라흐마니노프, 브루크너, 립스키 코르사코프, 베를리오즈 등 다양한 음반을 녹음하였다. 이외에도 2013년 이탈리아에서 프랑코 아비아티 최고 음악 평론가상을, 2014년 제노바 도시 문화유산에 기여한 공로로 Grifo d' Oro를 받았다.

1959년생인 파비오 루이지는 이탈리아 제노바(Genoa) 출신으로 니콜로 파가니니 콘서바토리에서 공부하였고 이후 오스트리아 그라츠에서 반주자로 일하면서 지휘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라츠의 음악원에서 지휘공부를 이어갔다. 포디움 밖에서는 열정적인 조향사이기도 한 파비오 루이지는 그에 의해서 제조되어 판매되는 향수의 수익금으로 Luisi Academy for Music and Visual Arts와 함께 그 혜택을 나누고 있다.

피아노 / 임동혁 Dong-Hyek Lim



©Sangwook Lee

부조니, 하마마츠, 몽티보 콩쿠르 등에서 입상하며 클래식 음악계에 혜성과 같이 등장한 피아니스트 임동혁은 이후, 퀸 엘리자베스, 쇼팽 콩쿠르, 차이콥스키 콩쿠르 등 세계 3대 콩쿠르를 석권하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임동혁을 총애하는 ‘피아노의 여제’ 마르타 아르헤리치의 추천으로 클래식 레이블의 명가 EMI를 통해 데뷔 음반을 녹음하였고, 이 음반으로 ‘황금 디아파종상’을 수상하였다. 2집으로 프랑스의 ‘쇼크상’을 받았고, 3집 바흐 골드베르크 변주곡 역시 큰 성공을 거두었다. 4집 쇼팽 프렐류드 음반 역시 영국의 그라모폰지와 BBC매거진의 극찬을 받았다.

임동혁은 샤를 뒤투아가 지휘한 NHK 오케스트라, 정명훈이 이끄는 라디오 프랑스 필

하모닉 오케스트라, 유리 테미르카노프의 상트 페테르부르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쿠르트 마주어가 지휘한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라 등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협연하였으며, 현재 베를린에 거주하며 유럽, 북미, 아시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끝-**